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국민이 편한 정부

2017년 10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0. 10. (화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
담당과장	김진 과장(044-203-5330)	담 당 자	박혜영 사무관(044-203-5336)

산업부, 원전수출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활동 전개키로

- 원전공기업·수출금융기관·건설사 등 17개 기관 '원전수출전략협의회'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주재**로 원전공기업, 수출금융기관, 두산중공업·현대건설·지에스(GS)건설 등 총 17개 기관·기업이 참석하는 「**원전수출전략협의회**」가 '17.10.10.(화)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.

○ **원전수출전략협의회**는 **최근 원전 수출여건에 대한 진단과 주요국별 대응전략, 원전 금융위험 경감방안** 등이 중점 논의했다.

< 협의회 개요 >

◈ 일시/장소: '17.10.10.(화) 14:00~15:30,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
◈ 참석기관: 한국전력, 한국수력원자력, 원전수출산업협회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산업은행, 한전기술, 한전KPS, 한전원자력연료, 두산중공업, 원전기자재 수출법인, 현대건설, 대우건설, 삼성물산, SK건설, GS건설 등 총 17개 기관

◈ 주요안건: 세계 원전시장 동향, 원전수출 경쟁력과 과제, 금융리스크 관리 등

□ 백 장관은 "**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지진위험성과 다수호기 밀집 등 국내적인 특수성을 반영**한 것이므로, **해외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.**"다고 말하고,

○ "**수익성과 위험을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**하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 **원전 수출은 ▸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의 보완 대책의 일환**이며, **▸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.

□ 이날 협의회는 **①세계원전시장 동향, ②원전수출 추진현황 및 과제, ③원전수출 금융위험 경감방안** 등 안건발표에 이어 참석기관·기업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.

① **원전수출협회**(김인식 회장)는 **세계 원전시장 동향**에 대한 발표를 통해, 세계 원전수주 시장에서 러시아, 중국이 독주하고 상황에서 우리의 진출시장이 점차 제한되고 있음을 말하고 **해외 원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**했다.

② **원전 수출의 경쟁력과 과제**를 발표한 **한국전력**(조환익 사장)·**한국수력원자력**은 아랍에미리트(UAE) 사례에서 보여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, **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 수출에 정부-원전업계-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응**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.

③ **한국수출입은행**(최성환 부행장)은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는 원전사업이 갖는 **금융 리스크의 경감방안**에 대해 발표하면서, **여타 수출여신기관과 공조**를 통한 전략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□ 협의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안건 발표에 대한 토론을 갖고, **해외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요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**하면서,

○ 미국 웨스팅하우스, 프랑스 아레바 등 국제 원전기업의 경영위기*를 우리 원전수출의 반면교사로 삼아 **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수출을 추진**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.

* (웨스팅하우스) 미국 원전 4기 건설지연으로 손실(244억불) → 기업회생절차('17.3)
(아레바) 올킬루오토 등 건설지연으로 대규모 손실 → EDF에 원전사업 매각('16.11)

□ 이날 협의회에서 백 장관은 영국·체코·사우디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**구체적인 원전 수주 지원방안**에 대해서도 말했다.

○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방한('17.4.4), 한-영 원전산업대화체('17.9.8)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한전 사장과 산업부 국장(직무대리)이 영국을 방문하여, **장관 면담과 국장급 양자회의**를 통해 영국 원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.

○ 체코의 경우, 우리 측이 올해 2월 초청한 **체코 원전특사의 방한시** ('17.10.10~14) **정부 고위급인사 면담**('17.10.10, 에너지자원실장), 원전산업 시찰 등을 통해 정부의 원전수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, 한국 원전의 우수성도 알린다는 계획이다.

○ 사우디에 대해서는 **한-사우디 비전 2030 협의회**('17.10.27, 서울)에서 우리측 산업부 장관과 사우디측 경제기획부 장관이 만나 사우디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백 장관은 정부도 최선을 다해 원전수출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,

○ 신규 원전도입 움직임이 있는 **영국·체코·사우디의 특수성을 지적**하며 원전공기업 뿐만 아니라 금일 참석한 **17개 기관 모두가 각 사업에 대해 최적화된 수주전략을 마련**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* (영국) 최대 '35년까지 3GWe 원전건설 추진, (체코) '35년까지 1GWe 원전건설 추진, (사우디) '30년까지 2.8GWe 원전건설 추진

○ 또한, 해외원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,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직도 유연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박혜영 사무관(☎ 044-203-53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원전수출전략협의회 개요**

□ 일시·장소 : ‘17.10.10(화) 14:00 ~ 15:30,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(11층)

□ 참석자 : 정부, 공기업, 민간기업 등 **17개 기관**

○ **(산업부) 장관**(주재), 원전산업정책관, 원전수출진흥과장

○ **(원전 공기업)** 한전,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KPS

○ **(금융 기관)**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산업은행

○ **(기자재 및 시공)** 두산중공업, 원전기자재수출법인, 현대건설, 삼성물산, 대우건설 등

□ 발표 안건

① **세계 원전시장 및 주요국 동향** (원전수출산업협회)

② **원전수출 추진 현황 및 과제** (한전/한수원)

③ **원전수출에 따른 금융 리스크** (수출입은행)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～14:05	5′	· **모두 말씀**	**산업부 장관**
14:05～14:15	10′	· (안건1) 세계 원전시장 및 주요국 동향	원전수출협회
14:15～14:25	10′	· (안건2) 원전수출 추진 현황 및 과제	한전/한수원
14:25～14:35	10′	· (안건3) 원전수출에 따른 금융 리스크	수출입은행
14:35～15:25	50′	· 토 론	참석자
15:25～15:30	5′	· **마무리 말씀**	**산업부 장관**